

제20차 한일중 산업보건학술집담회, 서울에서 성황리에 개최



제20차 한일중 산업보건학술집담회가 서울시 이태원동에 있는 Capital Hotel에서 2009년 8월 27일(목)-29일(토)에 개최되었다. 원래 20차 산업보건집담회는 6월 4-6일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멕시코에서 발발된 신종플루(H1N1) 때문에 연기된 것이었다.

첫 날에는 사업장 건강증진을 주제로 Workshop이 있었고 둘째 날에는 개회식에 이어 3개국에서 한명씩 Keynote address를 발표하였다. 이어서 오후에 발표될 69편의 포스터연제를 3개의 parallel session으로 나누어 구연하는 Oral-Poster session을 가졌다. 오후에는 Poster 발표에 이어 Free Communication 구연을 3 parallel로 16개의 연제를 가지고 진행하였다. 마지막 날에는 Occupational Stress를 주제로 Symposium을 가졌는데 이에 앞서 김치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이 있었다. Closing Ceremony에서는 국제산업보건학회의 소개 및 2015년 31차 국제산업보건학회의 전망과 제 21차 일중중 산업보건학술집담회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.

이번 집담회에 한국 측에서는 최병수 회장

을 비롯해 50명이 참석하였고 일본에서는 노동과학연구소의 Kazutaka KOGI 교수 등 54명이, 중국에서는 19명 등 총 158명이 참가하였다. 제 21차 일중중 산업보건학술집담회는 일본 Tokyo 인근의 Utsunomiya에 있는 Tochgi-ken Sogo Bunka에서 2010년 6월 10일(목)부터 12일(토)까지 개최할 예정이다.

베트남 바리아 붕따우 공단지역 집단보건관리와 관련된 업무 협의



협회는 9월 4일(금) 본부 5층 회의실에서 응우옌 티 홍 심(Nguyen Thi Hong Xinh)바리아 붕따우 인민의회 부의장 등 8명과 최병수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바리아 붕따우 공단지역 집단보건관리에 관한 업무 협의를 가졌다. 이번 업무 협의는 베트남의 경제개발 및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는데 보다 자세한 업무 협정은 현지 베트남 바리아 붕따우 공단 지역을 방문한 후 이루어질 예정이다. ☺